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음 4월 4일) 제15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시-총선 전주지역 당선자들 정책간담회

## 여야 떠나 지역발전 협력 '의기투합'

예산 확보 등 현안 추진  
실무TF팀 구성 합의  
기록문화진흥법 제정  
무형유산 박람회 등 논의



9일 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광수(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정동영(전주병) 등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승수 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시와 제20대 국회의원 전주지역 당선자들이 당적을 떠나 '전주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끈끈히 뭉쳐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의기투합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6월부터는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주시와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TF팀 구성에 합의해 성과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수(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정동영(전주병) 등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승수 시장,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66만 전주 시민을 대표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당선축하 인사와 함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국립 해외동포 교육 기지화 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주를 한국문화원형 관련 기록물 결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록문화진흥특별법 제정' 등 국가사업 프로젝트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강화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도비 지원과 무형유산유산의 보고인 전주에서 세계무형유산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국회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시는 주요 현안인 ▲항공대대 이전사업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핸드메이드 시티 프로젝트 ▲전주 탄소산업거점도시 육성 ▲호남의 관문, 전주역사 개선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국가기관(전주교도소, 법원·검찰청) 이전부지 재생 등 7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

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통한지 원류 복원 ▲전주 대사습청 건립 ▲전주필름스퀘어 건립 ▲ICT 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건립 ▲전주 북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농업용 드론센터 구축 ▲전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전주생태동물원 조성) ▲국도 26호선(전진로) 확장 ▲국도1호선 진입교량(삼례교) 보수·보강 등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필요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폭적 지원을 부탁했다.

주요현안 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 정동영 당선자는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보살피는 행정이 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늘을

출발점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검증도 하고 실현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당선자는 "전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전북도가 가려는 방향을 설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이 다르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삼인삼색의 특성을 살려 전주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당선자는 "전주에서 32년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것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3당 체제에서 변화가 이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전주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꼭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재 기자

### 社告

####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

폼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에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폼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을 열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
-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 北 "자위적 핵무력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 셋째 날 회의에서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7차 당대회 3일 회의에서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결정서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핵전쟁위험을 핵억제력에 의해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이라며 "제국주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또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커피 섭취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의 위험을 낮춘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일반인의 70%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부 비만 위험도 비(非) 애호가의 76% 수준으로 낮았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이대 식품영양학과 조미숙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커피 섭취가 한국 성인의 음식군 섭취·영양 섭취·대사증후군에 미치는 효과를 국제 학술지인 'NFS 저널' 최근호에 소개했다.

### 복부비만·고혈압엔 커피?

조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루 커피 섭취량에 따라 성인남녀 4808명을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룹1 ▲적당히 마시는 그룹2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3 등으로 나눈 그룹별 대사증후군 발생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에선 그룹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 교수는 "커피를 양껏 마셔도 대사증후군 발생률

### 성인남녀들 4908명 그룹별 조사결과 많이 섭취한 그룹이 발병 위험 낮아

이 특별히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사증후군의 5대 지표 중 ▲고혈압 ▲복부비만 ▲고(高)혈당 위험을 낮추는데 커피가 효과적이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룹3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그룹1'보다 약 30% 낮았다. 고혈당·복부비만 발생률도 각각 29%, 24%씩 하락했다. 조사 대상의



## 세계인의 밥상 이거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